

2023년 12월 31일. December 31, 2023
밤 11시. 11:00 PM

금문교회 송구영신예배. GGPC New Year's Eve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1.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2.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still waters.
 3. He restores my soul. He lead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4.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5.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6. Surely[d]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 시편 Psalm 23

여호와 삼마 YHWH Shammah

에스겔 Ezekiel 48:30-35

30.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사천오백 척이라.
"These shall be the exits of the city: On the north side, which is to be 4,500 cubits by measure,
31.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three gates, the gate of Reuben, the gate of Judah, and the gate of Levi, the gates of the city being named after the tribes of Israel.
32. 동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요
On the east side, which is to be 4,500 cubits, three gates, the gate of Joseph, the gate of Benjamin, and the gate of Dan.
33. 남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잇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요
On the south side, which is to be 4,500 cubits by measure, three gates, the gate of Simeon, the gate of Issachar, and the gate of Zebulun.
34. 서쪽도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요,
On the west side, which is to be 4,500 cubits, three gates,[h] the gate of Gad, the gate of Asher, and the gate of Naphtali.
35.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The circumference of the city shall be 18,000 cubits. And the name of the city from that time on shall be, The Lord Is There."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새 성전 설계도”의 마무리입니다.

새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신 청사진입니다.

이것은 동서남북이 정방형입니다. 북쪽, 동쪽, 남쪽, 서쪽 모두 길이가 각각 4,500척씩입니다.

북쪽, 동쪽, 남쪽, 서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각 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문이 세 개, 동쪽에 세 개, 남쪽에 세 개, 그리고 서쪽에도 문이 세 개씩 있습니다.

이들 문은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북쪽은 르으벤, 유다, 레위입니다.
동쪽은, 요셉, 베냐민, 단입니다.
남쪽은 시므온, 잇사갈, 스불론입니다.
서쪽은 갓, 아셀, 그리고 납달리입니다.

북, 동, 남, 서 사방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18,000척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And the name of the city that time on shall be, “the Lord is There.”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설계하신 그 새 성전에 임재하여 계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여 계시다가, 성전의 패역함을 보십니다.
에스겔 8-11장입니다. 마침내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을 그립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여 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22 Then the cherubim lifted up their wings, with the wheels beside them, and the glory of the God of Israel was over them. 23 And the glory of the Lord went up from the midst of the city and stood on the mountain that is on the east side of the city. 24 And the Spirit lifted me up and brought me in the vision by the Spirit of God into Chaldea, to the exiles. Then the vision that I had seen went up from me.

에스겔 Ezekiel 11:22-24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Ezekiel 36:24-28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떠나셨던 그 성전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이전의 성전”이 아닙니다. “새롭게 새우신 새 성전”입니다. 에스겔 40-48장은 바로 이 “새 성전 비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보면, 이것은 “새 창조”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forth. Do you not perceive it? I will make a way in the wilderness, and rivers in the desert.
이사야 Isaiah 43:19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수고 새롭게 빚어 만드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최악에 몰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가 되는 것은, 그 성을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빚어 세우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해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에스겔은 그 40-48장에서 새 성전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밤모섬에서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Apostle John)이 요한계시록(Revelation)에 기록된 바,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과 일치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had passed away, and the sea was no more. 2 And I saw the holy city, new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prepared as a bride adorned for her husband
요한계시록 Revelation 21:1-2

보십시오. 에스겔 43:1-5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1. Then he led me to the gate, the gate facing east.

2 And behold, the glory of the God of Israel was coming from the east. And

the sound of his coming was like the sound of many waters, and the earth shone with his glory.

3 And the vision I saw was just like the vision that I had seen when he[a] came to destroy the city, and just like the vision that I had seen by the Chebar canal. And I fell on my face.

4 As the glory of the Lord entered the temple by the gate facing east,

5 the Spirit lifted me up and brought me into the inner court; and behold,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emple.

에스겔 Ezekiel 43:1-5

바로 이 예루살렘, 사방이 네모반듯하여 정방형(square)이 되고, 각 면에 세 개씩의 문이 있는,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새롭게 하셔서 그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전의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건설한 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새롭게 된 새 이스라엘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새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아 새롭게 된 피조물, 새 이스라엘은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영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But to all who did receive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13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요한복음 John 1:12-13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새로운 지파, 열 두 지파가 그 문의 역할을 맡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열린 문! 세상은 이들의 전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거룩한 성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 성전의 이름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렇게 불릴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오늘 우리는 금문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우리는 20년 전 2003년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를 시작으로 여기 이 데일리시티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더욱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전주곡"(prelude)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써 역사하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며 감격에 겨워, 찬양 드리면서.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사, 성경말씀의 모든 약속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24년으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날 새롭게 하실 모든 은혜를 저희가 맛보며,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